



경건, 율림, 휘몰아치는 몸짓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수하며 백옥같은 고깔을 쓰고 나비처럼 가볍게 춤사위를 휘날리는 '나비무'. 이번 공연의 '운심계' 작법에서 선보인다.

불교의 전통의식과 공연예술이 무대에서 만난다. 4월 29일 오후 4시와 저녁 7시30분 두 차례에 걸쳐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이뤄지는 '한동희 스님의 율법공양' 공연이 바로 그것이다.

동희스님의 주제를 열리는 이번 공연의 주제인 율법공양은 신라시대부터 전통적으로 행해 온 불교의 6가지(향, 등, 꽃, 과일, 쌀, 차) 공양을 그 의미와 특색에 따라 연주와 춤으로 무대에 슬하한 전통불교의식.

1959년부터 영산재 예능보유자인 송암 스님으로부터 40여년 동안 법패를 비롯해 작법을 사사한 동희 스님(무형문화재 제 50호 영산재 이수자)이 이번 공연의 구성과 연출을 맡았다. 동희 스님은 95년 영산재의 모든 작법을 철저히 고증하고 정리한 '영산대작법'을 무대에 올려 불교문화계에 큰 반향을 불러 일으킨 바 있다. 특히 스님은 후학들을 위해 수십 년에 걸쳐 틈틈이 법패를 악보로 만들고 의식작법의 동작 하나하나를 직접 그려 무본(舞本)을 만들기도 했다.

'율법공양'은 절을 마치고 경건하게 꿇어 앉은 자세에서 바라를 땅에 고요히 부딪쳐서 소리내고, 다시 바라를 울리며 일어 서서 기하학적인 구도로 바라의 율림을 허공에 퍼뜨리는 '명발(鳴鉢)'로 시작된다. 이어 도량을 수호하고 재의 원만회향을 기원하는 '팔부금강(八部金剛)', 엄숙한 분위기의 '봉칭(奉請)', 바라무의 기본적 형태인 '요집(續面)', '법고(法鼓)', 길을 일으킨다는 '기경(起經)', '결수(乞水)', '들 진언(眞言)', '거령산(擧靈山)', '육법(六法)', '운심계(運心偈)', '원아계(願我偈)', '화칭(和請)' 순으로 진행된다. 이중 팔부금강, 거령산, 결수 등은

동희 스님의 '율법공양' 공연

불교의 6가지 공양의식 무대 예술화
법고와 어우러진 피리소리, 몸짓 백미
장엄, 의상 옛 전통 그대로 순수 제작
4월 29일 서울 호암아트홀에서

소리고 명발, 요집, 기경, 운심계는 작법이다. 불교의식공연의 하이라이트는 뒤편이해도 전 박자로 숨가쁘게 진행되는 법고다. '율법공양'도 예외는 아니다. 집입기경, 몰아지경, 법열락, 정중동... 끝간데 없이 몰아 들어가는 숨가쁜 박자와 구해 스님의 피리소리, 그 속에서 펼쳐지는 동희 스님의 표정과 몸짓은 불교예술의 백미를 만끽하기에 충분하다. 동희 스님의 공연에서는 눈여겨 볼거리가 또하나 있다. 바로 무대 의상이다. 스님은 공연에 필요한 모든 장엄·의상 옛 전통 그대로 순수 만들었다. 이번에도 흰 장삼에 붉은 가사를 걸치고 백옥같은 고깔을 춤사위를 휘날린다. 동희 스님의 단독 무대이지만 구해(호적), 덕림(북, 태징), 지

함께 즐기는 마음 종교 다를수 없다

제1회 템플처치 공연예술제



가족애를 주제로 한 극단 차이무의 연극 '양덕원 이야기'.

사찰과 성당, 교회 등 종교시설들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로 구성된 템플처치 공연예술제운영위원회는 4월 12일 일산 여래사에서 '제1회 템플처치 공연 예술제' 개막식을 가졌다.

불교, 개신교, 천주교 위원회 구성 여래사 신갈성당 등 7곳 무대 마련

6월 30일까지 매주 토·일요일에 걸쳐 열릴 이번 예술제는 일산 여래사, 포이동 능인선원, 수원포교당, 새벽월드교회 평화센터, 안양중앙성당, 안산 대학동성당, 신갈 성당 등 7개 종교시설에서 연극과 음악회, 뮤지컬 등 5개 문화공연이 무대에 올려진다.

이날 행사에서 조계종 문화부장 탁연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관광부에서 1억6천만원이 지원된 이번 예술제는 지난해 10월 '종교시설의 문화공간화' 시범운영을 통해 이뤄진 결과"라며 "문화공연을 교류하고 즐기는 것 자체가 바로 이웃 종교간에 친근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사찰 공연은 △일산 여래사(5월 9일: 어린이 뮤지컬, 23일:째즈) △수원포교당(5월 15·16일:어린이 뮤지컬, 6월 6일:째즈, 19일·20일: 뮤지컬 하이라이트) △능인선원(5월 26일: 작은 음악회, 6월 13일: 째즈) 등의 일정으로 진행된다.(02)736-2250

김주일 기자

월(북), 진성, 성해, 증문, 지수, 해법 스님 등 10여명의 스님들이 동참해 흥을 돋워주는 것도 이번 무대의 특징이다.

동희 스님은 "소중한 불교유산인 율법공양의 모습을 원형에 가깝도록 재현해서 그 문화적 가치와 정신을 널리 전양하며 불교를 알리고자 이번 무대를 마련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스님은 "특히 이번 무대는 40여년간 불교예술을 가르치다 3년전에 열반하신 故 송암 스님의 뜻을 기리는 의미도 함께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02)532-2760 글:김주일 기자 jim@buddhapia.com

재의식에 사용되는 기본춤인 바라무를 선보이고 있는 동희 스님(사진 왼쪽)과 '율법공양' 의식의 한 장면.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한 기도 영험도량에 범비 오는

동해사 삼사순례



동해사 비 오는 곳



삼보전에 귀의하옵고
밤 낮없이 사리탑위에 범비가 내려,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충만해있는 동해사. 범비의 자비광명으로 화신하여 중생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계신곳 동해사에 오시어 순례도 하시고 마흔 두가지 중 어떤 소원도 이룰 수 있는 사실이 수주 진언의 기도를 하시고저 하는일 이루어 보시기 바랍니다.

동해사 주지 해명 합창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 156번지 033-672-2900

방생 집전스님이 필요한 불교단체는 주지스님 집전 가능함.

- 동해사에서
낙산사 10분 소요,
유유암 15분 소요, 불탑사 10분 소요
- 바닷가 방생지 5분 소요
- 대형주차장 완비
- 100일기도 접수안내
꼭 소원이 간절하신분 접수하여
한가지 소원이라도 이루어보세요.
- ◇ 기도시간 : 4:00시 ~ 5:30분
오전 10시 ~ 11시 20분, 오후 5시~6시
- ◇ 기도비 : 10만원
(농협 331036-51-062531 동해사)

불교성지순례

(주)실크로드여행사

17년간 불자님들과 함께합니다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68-5 서흥빌딩 9층 조계사앞 (02)720-9600

부처님의 숨결을 느낄수 있는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전통있는 실크로드와 함께 최고의 순례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 특선 1 **하롱베이 / 앙코르와트 6일** 999,000원
●일정: 인천-앙코르와트-하노이-하롱베이-인천 ●출발일: 5월 28일
- 특선 2 **보현보살의 성지 아미산, 세계자연유산 구채구** 112만원

몽골, 바이칼호수 8일(몽골 대초원과 러시아 바이칼호수) ▶출발일: 6월 7일
▶일정: 인천-울란바타르-이르쿠츠크-시베리아-바이칼호수-울란바타르-테를지-인천

파키스탄, 실크로드 탐방 19일 ▶출발일: 6월 21일

불상의 탄생지 파키스탄의 간다라유적과 카라코람하이웨이르 따라 파미르고원(총령)를 넘어 실크로드-세계최장수 미물-훈자-쿠차 천불동 등 비경을 찾아 탐방하는 일정
▶일정: 인천-라호르-택실라-페사워르-스왓트-칠라스-길기트-훈자-키슈카르-쿠차-우루무치-돈황-서안-인천

중국불교 4대 명산 순례 *10명이상 출발 가능

- ▶ 지장보살의 성지 구화산 5일 (남경-구화산 지장성지-천하제일 황산-황주-영은사,서호-상해) 85만원
- ▶ 관음보살의 성지 보타산 5일 (상해-황주-영파-보타산-관음현신처 조음동-보제사,낙가산 등-상해) 79만원
- ▶ 문수보살의 성지 오대산 6일 (조주선사의 백림선사 임제선사의 임제사, 오대산, 운강석굴 등) 95만원

미얀마 성지순례 6일 (미얀마 최고의 불교 유적지 순례) ▶출발일: 4월 22일 149만원

▶일정: 인천-양곤-바간(2000여개의 불탑-거대한 유적군)-만달레이-양곤(세다곤대탑,기비에파고다-진신사리친전)-인천

티벳 성지순례 11일 ▶출발일: 6월 3일

실크로드의 수많은 경연으로 특색있는 티벳의 불교성지를 찾아서...
티벳일주 11일(티벳 라사에서 미탈라를 넘어 카투만까지) ▶일정: 라사-포탈라궁-정체-시가체-라체-시가(에베레스트 등 히말라야 조랑)-장루-카투만

수미산 순례 24일 ▶출발일: 6월 4일, 7월 6일, 9월 3일

수미산 순례의 선구자 실크로드가 수미산 순례단을 모집합니다. 수미산 순례는 어렵고 그만큼 많은 경험을 필요로합니다.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으며, 실크로드만의 노하우로 수미산 순례를 완벽하게 진행하였습니다.